

안양계우회를 찾아서!

빌쭈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역경 속에서 잘 단합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양계우회를 이번호의 탐방지로 잡았다.

생산일선에서 직접 느끼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회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고 우리 편집진들이 무엇을 어떻게 편집하여 우리 양계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바쁘신 중에서도 취재에 도움을 맡을준 박승민 회장이하 여러 회원에게 감사한다. ...<편집자 주>

취재 임 한 섭
<편 집 부>

● 친목도모로 출발 ●

지난 2월 18일 본협회에 가입신청을 해 놓고 승락만 기다리고 있는 안양계우회의 활동상황을 취재하기 위하여 우중이지만 협회를 출발하여 계우회 사무실에 도착하니 사전에 연락이 된 탓인지 정기모임일도 아닌데 계우회장이하 많은 회원이 우리를 반겨준다.

작지만 아담하게 꾸며진 사무실은 안양축협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안양계우회의 설립동기를 물었더니 박승민 회장은 73년도에 안양축산동우회라는 명칭하에 이웃한 생산업자 몇명이 모여 친목도모를 위주로 하여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한다. 그 후에 증가하는 양계산물의 수요와 급격히 발전해가는 새로운 사양기술, 기타 정보교환과 업자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중소업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75년초에 안양계우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안양지구에 산재해 있는 업자를 설득하여 지금은 35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76년정기총회에서 대한양계협회산하 안양분회로서의 가입신청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지난 2월 16일 협회에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 신용금고 기금 모금중 ●

올해 안양계우회의 사업계획과 실행사항을 보니 수익사업과 정보교환사업으로 나누어져 수익사업은 약품의 공동구입과 병아리알신, 사료의 구입시에 그룹별로 구입하는 등으로 각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하고 거기에서 약간씩의 적립금을 남겨 계우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신용금고기금을 모금중이란다.

이 기금의 목표액은 200만원인데 이 기금이 목표액에 달하면 지금 안양축협과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는 것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회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이자가 많이 생기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그리고 정보교환사업은 가축위생연구소와 가축보건소의 협조로 타지역에서는 좀처럼 하기 힘든 세미나를 월 1회 개최하여 회원들 생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안양계우회의 조직을 보면 육계분과와 채란분과로 나누어져 각 분과별로 분과마다 필요한 사항을 토의한 다음 전체적으로 매주 목요일 회합을 갖는데, 각 분과의 활동사항 계획은 다음과 같다.

육계분과의 가장 특징적인 사업은 병아리구입시에 세일즈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육계분과에서 구입해다 쓰고 출하시에는 63일령기준으로 체중이 1.9-2kg 정도에서 입추순서대로 출하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까지의 어떤 방법보다 생산자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문기현분과위원장은 말했다.

● 직영판매장 설치 ●

육계분과는 육계분과나름대로의 기금을 모집하여 계육직용판매장을 안양시내에다 설치하는 것이 지금의 사업계획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기금모집운동은 75년 중순에 시작하여 현재 80만원정도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목표액인 200만원은 77년 초에 무난히 달성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안양지구는 타지역보다 육계시세가 약간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여보니 20,000수 이상 사육하는 대생산자들은 서울 등 대도시로 출하하고 있고 육계의 계절적 수요에 대비한 병아리공동구입과 출하에 전회원이 보조를 잘 맞추어 주는 것도 육계가격이 좋은 원인이나 공장지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대량소비처가 많은 것도 타지역보다 유리하다. <시세비교 2월 18日 : 서울 533.33원/kg, 안양550원/kg: 하이브로>

그런데 기금이 다 모이게 되면 우선 육계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성과가 좋으면 지금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계법이 지방으로 확대 실시 될 것에 대비하고 중간상인의 농간배제와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으로 처리된 계육의 공급을 위해서 간이도계장이라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사료구입은 주로 안양축협에서 주문사료를 쓰고 있으며 각 개인공장사료도 그룹별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축협사료는 양계업자의 실정에 맞는 사료를 배합할 수 있어 품질이 보장되고 질적인 면에서도 안정되어 있는 반면 축협사료는 꼭 현찰로 구입해 쓰고 있는 것이 약간 불리하나 채란분과와 공동으로 축협사료구입시에 kg당 50전씩을 회원들로부터 찬조받아 별도의

사료구입기금도 조성중이다. 이 사료구입기금이 조성되면 회원들은 축협사료를 일정하고까지는 외상구매가 가능하게 되며 자금유통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회원들에게 보탬이 되리라고 박승민회장은 설명하고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구입할 때에도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회원들이 그룹별로 구입해 쓰기 때문에 20kg들이 부대당 50원 정도 싸게 구입해서 쓰고 있다.

● 수수당 10원 적립 ●

채란분과는 75년 말에 설립되어 큰 활동은 아직 없으나 병아리구입시 공동으로 싸게 구입하여 수수당 10원씩 기금에 적립하기로 하고 76년 초부터 모금중인데, 이 기금의 목표액인 200만원은 77년 중반에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박성원채란분과위원장은 설명하고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안양축협사무실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판매장을 마련하고 안양지구의 공장과 부녀자를 상대로 육계분과와 공동으로 요리강습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다.

● 기금조성이 과제 ●

박회장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단합심 타지역과의 교류문제는 양계협회에 가입신청중이니 별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나 기금조성이 계우회의 최대 관심사라고 말하고 지금은 기금이 조성중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단다. 77년에 분과별기금과 사료기금이 조성되면 생산문제에도 힘쓰겠지만 소비증진에 역점을 두고 안정된 시장구축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또 안양지구는 가축위생연구소와 가축보건소가 인접해 있기 때문인지, 각 양계장간의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인지, 큰 질병의 발생이 거의 없는 것이 안양지구의 특징중에 하나란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은 여기도 마찬가지란다. 특히 난가문제에 있어 한 회원은 지금 시세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저난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에 대한양계협회지부와 분회가 설립되어 업계의 적정이윤보호와 소비증진운동이라도 벌려야 할 것이라고 박회장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들은 각 업계에 다른 몇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사료회사에 바라고 싶은 사항은 양축가들의 최대관심사는 사료가격과 질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요즘 일부회사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회원들은 말하고 있다. 물론 사료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원료가에 많이 좌우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료의 질이 갑자기 떨어지면 산란계는 스트레스를 받아 산란율의 10~15%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고, 육계는 증체율이 뚝 떨어져 63일령기준으로 1.4~1.5kg정도 밖에 나가지 못한다. 양축가의 수익이 좋아야만 사료회사도 잘 운영되므로 사료의 질만은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사료판매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회사는 직판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회사는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점은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요즘 실시되고 있는 축산물유통개선법안의 실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지방으로 확대 실시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육계생산자의 보호와 도계업자의 횡포방지를 위하여 도계장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함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소득세부과문제는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라고 말하고 만일에 지금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축산업계의 발전에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기반이 잡혀가는 양계장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왕병아리단속은 시기가 늦은 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도 잊지않고 부탁했다.

● 소비증진에 힘쓸 때 ●

끝으로 양계협회에 바라고 싶은 점은 이제

		성 명	사육수수
회 감 부	회 장	박 승 민	채 5,000
		조 정 찬	육 160,000
간 이	사 사	김 준 규	육 8,000
		이 병 기	육 5,000
이	사	김 영 택	채 5,000
		권 태 용	채 5,000
이	사	임 종 균	육 10,000
		강 태 희	채 10,000
산란분과위원장		신 동 규	채 6,000
육계분과 "		박 성 원	채 8,000
감 이 이	사 사 사	문 기 현	육 5,000
		최 용 규	채 2,000
		박 태 서	채 3,000
		김 이 승	채 7,000
		허 남 주	채 3,000
		원 영 균	채 4,000
		김 광 학	채 6,000
		서 태 섭	채 4,000
		박 기 권	채 4,000
		이 재 성	채 5,000
이	사	이 태 섭	육 10,000
		이 안 종	채 4,000
이	사	원 대 진	육 3,000
		이 관 재	육 4,000
이	사	손 명 언	육 4,000
		김 상 의	채 1,500
		구 오 온	육 15,000
		오 강 록	육 5,000
		박 충 희	육 7,000
		박 응 권	채 6,000
		유 일 용	채 1,000
		김 인 경	채 2,000
		신 응 수	채 5,000
		김 태 준	채 5,000

까지 생산증대, 양계업자단합, 정보제공 등 업계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준데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이제는 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생산물의 출하와 수요의 균형을 이룩하는데까지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켜 주는 교량역활을 담당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